

벤처기업 발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최근 벤처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금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벤처 투자 활성화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5월 16일 118개 벤처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문제점 및 발전전략 등을 담은 '국내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다 넓은 시야로 우리 벤처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 경영성과를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발전전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한 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은 자금부문(27.9%)에서 가장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내수(20.3%), 비용(15.6%), 수출(14.0%), 경영환경(12.1%), 기술(9.2%)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1~2004년 중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2000년 후반 이후 부실 벤처기업의 퇴출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면, 안전성 지표(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벤처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벤처기업 수익성 개선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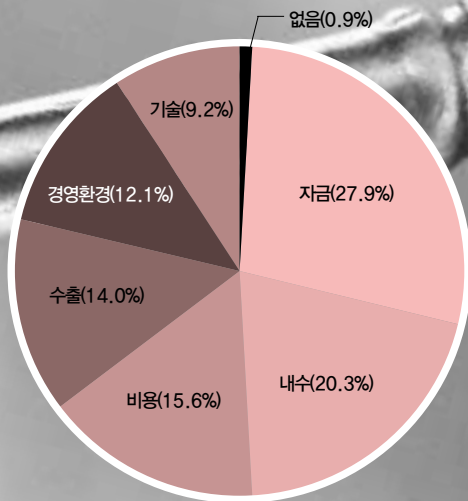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 및 연구개발(R&D) 관련 지표는 2003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체 평균 R&D 인원은 2003년 9.1명에서 올해 6.7명으로 급감했으며 업체평균 R&D투자액은 2003년 4억 7000만원에서 2004년 4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은 2002년 6.7%에서 2004년 5.6%로 줄었다.

코스닥에 신규 등록된 벤처기업 수는 2001년 134개에서 2004년 37개로, 업체 평균 외부 투자자금 조달액은 2001년 11억 3100만원에서 2003년 9억 85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창업투자조합 결성금액은 2001년 7910억원에서 2004년 5274억원으로 감소했다. 벤처기업의 수출비중이 2001년 13.6%에서 2003년 17.0%로 상승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각각 1/2, 2/3수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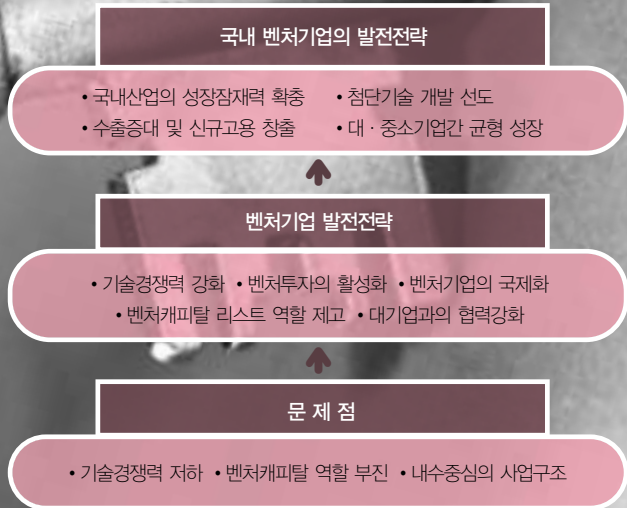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은 2001년 29.3%에서 2004년 32.4%,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년 3.3%에서 2004년 6.4%로 각각 증가했지만, 재무안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은 같은 기간 50.9%에서 44.4%로, 부채비율은 97.6%에서 125.3%로 각각 악화됐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3년 6.0%에서 지난해 6.4%로 높아졌으며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3.5%에서 5.4%로 올라갔다. 이에 비해 매출액대비 금융비용의 경우 2.4%에서 2.0%로 줄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사대상 벤처기업 중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55.9%였으며 30.5%는 'R&D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고 13.6%는 'R&D 조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벤처기업들은 스스로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4.4%는 세계 최고수준과 비교할 때 기술수준이 '약간 미흡'하다



〈벤처기업의 경영여로 부문〉
주: 복수응답, 응답업체수 118개임



고 답했으며 38.5%는 '세계 최고 수준과 동일' 하다고 답했다. 10.3%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 이라 답해 '미흡' 이나 '경쟁열위' 의 경우는 10% 미만에 불과했다.

벤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들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국내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국내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다음 5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로, R&D 투자 확대 및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대체 위주의 범용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수출유망 품목의 원천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정보통신(IT)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및 생물기술(BT), 나노기술(NT)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R&D 관련 예산 및 세제지원을 확충해 연구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로, 연기금이나 은행 등으로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원을 확충해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코스닥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거나, 벤처기업에 대한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기법

을 개발하고 M&A 중개기관을 양성해 M&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로,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육성해 우수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확충하는 등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투자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억제하는 등 강력한 모니터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대기업의 생산·마케팅·자본 등을 접목해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시너지효과를 양상**하는 방안이다.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 가운데 35%가 현재 대기업과 협력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향후 협력을 희망하는 업체는 89.4%에 달해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기반 조성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활용,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 M&A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국제 네트워크인 '한민족 글로벌 벤처네트워크'와 벤처융합상사인 '인케코퍼레이션' 등과 같은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브릭스(BRICs)의 일원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 동유럽시장 등으로의 시장진출을 확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략 중 하나이다.

자료출처 :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